

인터뷰-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 3인

“성숙한 구성원 모습 자랑스러워”...“법인과는 협력필요”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기호 3번  
황주호 공과대학 교수

**Q. 소감**  
구성원 간 이견은 있었지만 이를 잘 조율하면서 결국 최종 후보자 3인이 결정된 것은 구성원이 충분히 자랑스러워할만한 일이다. 총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정립된 절차에 의해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후보자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 개교 70년 이래 구성원의 직접적인 의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된 것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절차를 밟아 지금까지도 달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 안에서 최종 후보자로 뽑혀서 행복하다.

**Q. 법인과의 관계**  
대학 발전에 법인과 대학이 바라보는 목표의 방향은 다를 수가 없다. 하지만 법인과 대학이 함께 바라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준비한 상태로 법인에 의사를 밝히고 동의를 받은 뒤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과 대학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목표 실천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해 좋은 대학을 만들고 싶다.



기호 6번  
한군태 정경대학 교수

**Q. 소감**  
책임감, 책무, 총장의 역할과 같은 부분을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제시했던 교육 철학과 미래 비전 및 세부 공약에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만일 최종적으로 총장이 된다면 실현 가능한 공약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대학의 정책이나 의사 결정에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표해 모두가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에서는 구성원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동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Q. 법인과의 관계**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설립 정신이 있고 창학 정신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창학 이념과 잘 호흡해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인과 서로 긴밀한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인의 정책을 대학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호 7번  
장성구 의과대학 명예교수

**Q. 소감**  
일단 대학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1차적인 메시지를 받게 됐다. 대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솔직히 과정상에 혼란스러운 부분은 조금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교 70년 이래 처음 해보는 선거라 그랬다고 생각한다. 이런 선출 과정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처음이었지만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표실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선거가 계속된다면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Q. 법인과의 관계**  
대학 발전을 위해 법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절대적이다. 우리학교 법인은 대학에 해야 할 의무를 100% 해주고 있는 몇 안되는 법인이다. 물론 발전을 위해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인이 대학에 투자하는 합법적 수익 사업에 대한 대학의 협조도 있을 것이고 법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요청할 것이다.

■ 숫자로 보는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선출

#. 법인 이사회에 보고될 최종 후보자 3인이 구성원 손으로 결정됐다. 최종 후보자 3인이 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총장 선임 이후 중요해질 법인과의 관계를 물어봤다. 또 갖가지 데이터가 만들어진 이번 선거를 숫자로 알아봤다.

7명  
출마한 예비 후보자



3명  
인문사회계열 예비 후보자

3명  
이공계열 예비 후보자

15,712명  
투표한 유권자 수

42.2%  
전체 투표율

6회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횟수

305분  
예비 후보자 토론회, 정책 발표회 소요 시간

57일  
총장 초빙 공고부터 최종 후보자 3인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57일  
총장 초빙 공고부터 최종 후보자 3인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Your Story? Our History!

# 3분latte영상 공모전

“나 때는 말이야...”  
경희기록관에서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3분 latte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40년의 후배들에게 일찍이 대학(원) 생활을 영상으로 표현해 보세요.

**주제**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개교 70주년의 대학(원) 생활

**분야**  
1. 교내활동 : 수업, 과제, 조 모임, 동아리, 소모임, 체육대회, 축제 등  
2. 일상생활 : 맛집, 통학로, 주거공간, 취미활동, 유망활동 등  
3. 자유주제 : 장외활동과 자유롭게 자신의 키워드를 선정  
※ 예시) 나의 3분 latte 보이는 3시간 통학길

**대상**  
대학생 (1인) 상금 50만원  
대학원생 (2인) 상금 30만원  
우수상 (3인) 상금 20만원

**참가 자격**  
경희대학교(원) 학생 (영학년, 후보생, 졸업예정자 포함)  
※ 팀으로 참가 시 한팀 3인 이내

**작품 형식**  
FHD (1920 X 1080)급 동영상 파일 (무 3분 이내 권장)

**제출 방식**  
직접 방문, 이메일 (archives@khu.ac.kr)

**마감 기한**  
2019년 12월 6일(금) 17시까지

**문의**  
경희기록관 (Tel: 02-961-0759 / E-mail: archives@khu.ac.kr)

**기타**  
• 제출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경희기록관에 있습니다.  
• 참가자 전체에게 경희기록관 기념품을 드립니다.  
• 영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www.khu.ac.kr) →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

경희기록관 · 개교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나를 알고싶은 경희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미래인재센터 DISC 검사 실시안내

이디스크 말구요!

나의 행동특성	직무별 매칭도
스트레스 스타일	의식/무의식의 성향

↑ 요걸 모두 알 수 있는 검사가 바로 Extended DISC 검사! (약 5만원 상당)

신청하기 [참가비 무료]

행동기반 DISC 검사 특징점

- 저학년 : 자기이해**  
나의 강점점 / 나의 학습스타일 / 스트레스스타일 / 인간관계스타일 / 무인사적, 인사의 행동스타일 파악으로 진로나 나를 알아간다!
- 고학년 : 직무매칭**  
행동스타일에 기반한 직무별 역량 (매칭률, 유망성) 선출직업, 기업에 맞는 선출하는 공통역량 등을 통해 나의 어떤 직무와 가장 궁합이 좋겠는지 미리알아둘 수 있다!
- 검사 즉시 결과와 열람, + 해석 워크샵 제공으로**  
신뢰도 높은 결과 분석 가능!  
검사(10분) + 워크샵 (90분) 총 100분 투자로 나를 100%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검사 실시 및 워크숍 일정(서울캠)**

차수	날짜(요일)	시간	장소
1차	11.13(수)	18:00~20:00	한의대 263호
2차	11.14(목)	13:00~15:00	센과대 B105호
3차	11.21(목)	18:00~20:00	정경대 403호
4차	11.26(화)	13:00~15:00	호관대 컨벤션홀
5차	11.27(수)	15:00~17:00	문과대 101호
6차	11.28(목)	13:00~15:00	청문관 207호
7차	12.04(수)	18:00~20:00	경원대 151호

**검사 실시 및 워크숍 일정(국제캠)**

차수	날짜(요일)	시간	장소
1차	11.13(수)	13:00~15:00	
2차	11.26(화)	17:00~19:00	
3차	12.05(목)	15:00~17:00	

장소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개인 일정에 맞지 않는 캠퍼스에서, 어느 장소에서도 참여가능!! [자유선택 선착순 100명]

KHU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 x 대학혁신지원사업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KYUNGHEE UNIVERSITY PRESS

### 최후의 전환

모두의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서양 과학의 뿌리를 뒤쫓던 물리학자 카프라와 이탈리아 커먼즈 운동을 이끈 법학자 마테이오의 대화에서 출발한 이 책은 자연, 공동체를 되살리는 법체계에 대한 대담한 통찰을 보여준다. 또한 과학과 기술, 자연세계, 법 제도로서의 커먼즈가 어떻게 정당한 사회를 위한 법으로 진화하는지 열린 관점을 제공한다.

프리츠트 카프라·우고 마테이 지음  
박태현·김영준 옮김 24,000원

피터 와티스 지음, 이준호 옮김 20,000원

### 빙하여, 잘 있거라

기후변화, 북극의 빙하가 사라진다.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1970년부터 50여 년간 극지를 연구해온 피터 와티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들려준다. 와티스 교수는 북극 해빙과 기상 이변의 패턴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한다.

문의 02-961-0106 이메일 press@khu.ac.kr 홈페이지 http://khu.press.com